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勢力調査研究

蘇聯經濟体制의 改革過程에 관한 研究

研究執筆責任 李承潤



(略歷) 美國 위스콘신大學校卒業 (1960)

서경대,西江大,延大 教授歷任 (1961~1976)

現在 國會議員

刊行責任 金淳培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本 研究課題는 蘇聯이 1965年부터 企業管理 方式에 「計劃과 利潤制度」를 部分的으로 導入한 事實과 共產主義「價格体系」問題를 그 主題로 取扱했음.
- 本 論文은 結論的으로 蘇聯의 비록 企業運營에 利潤制를 導入했다 할지라도 資本主義式의 價格体系를 施行하지 않는 한 經濟의 落後性은 克服할 수 없다는 點을 指摘했음.
- 本 論文은 主題에 대한 広範한 考察을 하는것 보다 소비트革命 初期의 經濟計劃 內容과 最近의 蘇聯經濟 現況을 說明하는 데에 훨씬 많은 紙面을 활애하고 있음.
- 그러나 蘇聯의 經濟를 把握하는데 資料의 價值가 있음.

的大家事，大家的事。

你作主吧。

潘明海：潘志。

潘志。

潘志。

潘志。

潘志：潘明海。

潘明海：潘志。

潘志：潘明海。

目 次

第1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3
가. 研究의 目的	3
나. 研究의 範圍	6
第2章 「맑스」의 經濟理論과 蘇聯共產主義의 變遷過程	9
가. 「맑스」의 經濟理論과 共產主義体制의 形成	9
나. 蘇聯共產主義思想의 變遷過程	12
第3章 蘇聯의 經濟計劃과 生産管理體制	15
가. 年度別 經濟計劃 過程	15
나. 蘇聯經濟計劃의 作成方法	25
第4章 蘇聯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	30
가. 國民總生産 및 豫算規模	30
나. 資本蓄積率과 工業部門의 現況	36
다. 集團化 經營體制과 農業生産의 沈滯	44
라. 東·西貿易의 增大과 蘇聯의 對外貿易	50
第5章 蘇聯經濟의 問題點 및 展望	56
가. 蘇聯經濟의 問題點	56
나. 利潤制度和 새로운 價格體系의 定立	59
다. 價格體系의 展望	63

第 1 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가. 研究의 目的

蘇聯은 共產主義經濟體制가 生産性的 低下를 우려하여 지난 1965 年부터 西歐資本主義의 成長刺戟劑인 利潤追求方式을 부분적으로 採用해 왔다. 蘇聯 共產黨中央委員會가 採択하기로 한 이같은 새로운 制度란 이른바 「利潤指向型」으로써 中共이 指摘하고 있다시피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修正」일 뿐 아니라 事實은 그의 否定이 되는 것이다.

共產世界에서의 先進國인 蘇聯이 이같은 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맑스」理論의 基本敎理가 歷史의 前進과 더불어 이미 그 適應性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實驗 50 年間「러시아」는 封建的 後進國으로 부터 오늘날 世界에서 事的으로 2 位の 超強大國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結果는 共產獨裁政治에 依한 國民生活의 1 世代乃至 2 世代의 完全犧牲의 터전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의 本質的 欠陷은 私有財産의 排除等 獨自의 慾求의 抹殺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른바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은 中央集權的인 一元的 計劃과 統制에 依해 質과 「코스트」를 無視한 量的 確保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無」에 다름없는 「均貧狀態」의 初期에 있어서는 應分の 成果를 거둘 수 있지만 一定한 水準에 이르던

勞動生産性的 低下, 「코스트」의 增大, 品質의 粗劣等으로 因하여 生産의 停滯되고 國際競争力を 喪失하면서 經濟成長을 鈍化시키게 되는 것이다.

蘇聯에서는 이제껏 工業部門이 先을 이뤘고 農業에 있어서는 더욱 심했다. 「코르호즈」(協同農業) 및 소호즈(國營農場) 등에 얽매어 있는 蘇聯의 農民은 지난 50年동안 사보타르로 一貫해 왔고 結局 耕地 3.5% 정도의 私有 및 그 生産品の 自由處分을 認定해 준 다음 肉類의 40%以上과 牛乳, 채소의 80%以上 등이 이 私有農場에서 生産되었다. 지난 5年前부터 利潤制度를 實施하여 增加된 一定한 利得의 「該農場員 所得制」를 實施한 結果 食糧生産은 過去 最下 8千万屯 最高 1億2千万屯으로 부터 68年度에는 一躍 1億8千万屯 水準에 이르러 그들의 8次 5個年計劃(1970年度) 目標을 오히려 超過한 바 있다. 「리베르만」 「네르치노프」 「트라케즈니코프」教授等에 의해 62年以來 提昌된 自由主義經濟體制의 導入主張이 公公然히 나올기 始作하고 그리하여 蘇聯共產黨中央委에서도 不得已 이같은 體制의 實施에 着手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966년에는 7百4個 企業체에, 67年度에는 5千5百, 68年度에는 6千여개로 그 體制를 擴大實施해 갔다.

이같은 數의 企業체가 차지하는 生産的 比重은 全体 蘇聯工業 總生産에 對해 總 4割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體制란 要컨데 ① 生産方式의 企業체 獨自性, 擴大에로의 전환 ② 企業의 獨立採算性 強化 ③ 價格制度의 合理化 및 ④ 勞

動者에 對한 物質的 關心의 刺戟 等으로 要約되는 것이다.

70年度 現在 蘇聯의 國民總生産은 美國의 그것에 對해 約 48% 實際額으로써 約 4千8百億弗 정도이다. 그러나 生活水準은 比較가 안될만큼 低水準이며 GNP의 實質成長率은 50年代에는 4.5% 정도 떨어졌다.

이와 같이 蘇聯의 苦悶과 「딜레마」는 國民消費性向의 提高必要性和 軍備擴張의 불가피성간 矛盾에 基因한다. 以上과 같이 蘇聯에서의 資本主義제도의 일부 導入은 바로 共產主義의 歷史的 變質을 뜻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들의 解釋대로 한다면 이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새로운 歷史的 條件에 알맞는 적용이라지만 그들이 現存 社會體制를 고수하고 있는한 그의 完全自由主義化란 아직도 그前道가 요원하다.

그러나 蘇聯에 있어서 經濟管理體制의 本格的 改革은 장차에 있어 經濟發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近年의 國際情世의 「해빙무드」와 더불어 美·蘇間의 交易의 增大는 장차 賑調로운 南, 北關係와 非敵性國 交易의 增大를 目標로 하는 政府의 施策으로 볼때 새로운 次元에서 蘇聯經濟의 全般的 研究를 強要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報告書는 國土統一院의 研究委囑에 依하여 「蘇聯經濟의 體制와 現況」을 1917年 10月 蘇聯社會主義 革命以後의 經濟發展過程과 함께 1950年代 以後 蘇聯이 斷行한 生産관리制度의 改革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나. 研究範圍

65년부터 利潤追求方式을 採用해온 結果 生産性을 提高하는데 短期的인 效果를 發揮하기도 하였으나 상호相反되는 政策의 混用은 漸次 그 跋行性을 드러내어 지난 1969年度の 蘇聯經濟는 65年以後 最惡의 1年을 記錄하였으며 그結果 統制計劃經濟에 대한 회의를 蘇聯支配層에 안겨 주었다.

이같은 現象은 經濟에 利潤制導入으로 經濟發展을 도모하는 것과 는 달리 바로 그中核인 「價格」과 「貨金」을 계속 엄격한 統制 下에 둠으로써 「市場要因」을 배제한데 연유하는 것이다.

蘇聯은 지난 1966年度에 約 700個의 「示範企業」을 選定하여 利潤追求方式을 試驗하였는데 이들 示範企業체가 年間 約 25%의 利潤을 거둔데 對해 餘타의 企業은 平均 10%의 利潤만을 記錄하였다.

또한 現在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集團運營方式」보다 家族單位營 農이 約 6倍의 生産性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試驗에 만족한 政策当局은 「蘇聯經濟가 變革期」를 맞았 다고 自負, 相反된 政策을 계속 追求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過程에서 蘇聯이 과감히 價格體系의 變化를 試圖했다라면 經濟政策 은 成功裡에 進行되었을지도 모른다. 即 國家의 嚴格한 計劃下에 서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져 온 配給組織은 탄력성 있는 企業運營에 對應할 組織으로써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사실은 곧 共產主義

經濟自體의 붕괴를 뜻하는 만큼 移行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試行錯誤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蘇聯의 利潤制度를 基礎로 한 經濟改革은 지난 1969年末까지 全體工業의 生産單位 約 4분의 3인 3萬6千個의 工場을 새로운 形態의 制度로 바꾸었으며 이들 業體는 全體工業生産의 83.6%, 利潤總額의 91% 이상을 차지하여 多小의 效果를 과시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69年度 蘇聯經濟의 各種 成長率의 指數는 70年으로 끝난 第8次 5個年計劃期間中 目標達成이라는 最惡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特히 1人當 實質所得增加率은 目標 5.5%에 未達하는 5%에 그치고 말았다.

結局 蘇聯經濟가 침체에서 탈출하려면 앞으로 몇가지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이미 失敗한 經濟改革을 再改革하는데 따른 不可避한 經濟的 마찰이며

둘째로는 이제껏 蘇聯經濟發展에 除動要因이된 國防費의 增加를 어떻게 삭감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더우기 「브레즈네프」가 軍裝備現代化를 當面課題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軍事費는 今後에도 계속 커다란 經濟的 負擔이 될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範圍는 第2章에서 初期 蘇聯共產主義經濟體制의 基盤을 形成한 「맑스」의 經濟理論과 蘇聯의 經濟體制를 約述하였고, 第3章 蘇聯의 經濟計劃과 生産管理體制에서는 計劃過程의 歷史

的 背景 과 生産管理体制의 欠陷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第 4 章에서는 前述한 劃一的 生産管理体制에서 야기된 勞動生産의 低下 및 農業의 침체현상을 經濟現況과 比較하여 分析하였으며 이 같은 管理体制의 欠陷을 示정하려는 理論上의 問題點과 特히 1960 年代에 단행한 制度의 改革內容을 第 5 章에서 취급하였으며 蘇聯經濟의 問題點 및 展望으로써 軍備擴張과 國民消費生活의 向上과의 對立과 기존권력체제의 維持를 위한 修正主義思想의 擴大에 따른 制約要因을 檢討함으로써 蘇聯經濟의 今後의 展望을 豫測하였다.

第2章 「맑스」의 經濟理論과 蘇聯共產主義의 變遷過程

가. 「맑스」의 經濟理論과 共產主義체제의 形成

「맑스」는 「資本論」에서 主로 近代資本主義社會의 經濟運行法則을 分析하는데 目的을 두고 分析의 道具로서는 唯物論的 弁証法을 活用하였고 分析對象으로 資本主義社會의 生成과 發展 그리고 消滅過程을 檢討함으로써 資本主義의 必然的인 沒落과 社會主義經濟社會形成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맑스」는 以上の 結論을 導出하기 爲하여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主張하였는바 勞動價值說은 英國古典經濟學의 「리카르도」가 發展시킨 投下勞動價值說을 擴大發展시킨 것이다.

「投下勞動價值說」은 價値의 決定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하였다. 例를 들어 한마리의 닭을 잡는데 所要되는 時間이 열마리의 새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量과 같다면 한마리의 닭과 열마리의 새는 同一한 交換價値를 形成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勞動價值說의 矛盾은 모든 勞動의 異質的 現象을 同一하게 取扱했다는 點이며 經濟的 財貨의 價値가 勞動에 의해서만 決定되고 形成된다고 판단한데 있다.

둘째로 剩餘價值說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資本家 階級은 生産手段을 所有함으로써 資本家들이 所有하고 있는 生産手段과 勞動

者들이 提供하는 勞動力이 結合하여 商品이 生産되며 生産된 商品의 價值속에는 投下된 資本과 勞働의 價值에 比하여 더 많은 超過分의 剩餘價值가 生産되는 바 結果的으로 地代, 利潤, 利子等の 形態로 資本家에게 다시 歸屬됨으로써 資本家は 持續的인 富의 蓄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生産要素 가운데 勞働以外的 生産要素는 그 自体의 價值가 勞働生産物에 그대로 移轉될 뿐이나 勞動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体의 價值보다 더 큰 剩餘價值를 生産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맑스」는 勞動力 自体의 價值는 勞働時間에 依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勞働者들의 最小限의 生計費와 一致하는 範圍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勞働의 固定性을 主張하였다.

이처럼 「맑스」는 剩餘價值論을 통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의한 勞働者의 착취관계로 說明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產制度의 廢止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剩餘價值說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우선 價値의 要素를 勞働一辺倒로 解釋하고 있으며 商品生産過程에서 야기되는 資本, 原料, 土地, 企業能力等 여타의 生産要素等을 도외시키고 있는 事實이다.

세째로 「맑스」가 主張하고 있는 「資本主義 崩壞論」에 對한 概要를 보면 結局 資本家들은 보다 많은 剩餘價值를 얻기 爲해서 勞働者들의 勞働時間을 延長시킨다든가 勞働者들의 勞賃을 떨어 뜨리게 되나 그것은 스스로의 限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大部分의

경우 技術의 革新을 통해서 勞働生産性을 높이는 方法을 扞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變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變資本인 勞働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勞働의 減少現象은 勞働에 依하여 發生한다는 剩餘價值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的으로 資本家の 利潤率이 減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資本家は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爲하여 資本蓄積에 依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시키고 群少企業을 吸收 併合함으로써 独占에 依한 生産費를 감축시킨다 하였다.

한편 勞働者들의 경우를 보면 生産量이 抗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即 機械化에 依한 것이므로 勞働者의 失業率은 機械化와 比例하여 增大하여 結局 貧困의 加速化를 招來한다고 보고 있다. 그럼으로 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の 大量商品生産과는 달리 勞働者들의 貧困으로 因한 商品需要가 減少함으로써 恐慌이 야기되며 이러한 現象이 長期化하면 過剩生産으로 因한 恐慌이 持續됨으로써 이같은 矛盾을 극복하기 爲하여 資本家は 国内的으로 独占結合에 依한 搾取體制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社会的으로 階級對立이 兩極化되고 對外的으로는 資本主義 國家間的 海外로의 資本輸出과 海外植民地開拓을 爲한 競爭이 심화되어 資本主義 國家間的 競爭이 不可避하며 結局에는 資本主義社會가 崩壞되고 만다고 하였다.

「맑스」理論의 根本的 矛盾은 資本主義經濟의 前進과 더불어 利潤率이 低下된다고 主張한 점이다.

即 經濟發展을 一定한 시점을 기준으로 靜態의인 側面에서 본다면 投資가 增加됨에 따라서 資本家の 利潤이 一時的으로 低下되는 現象을 일으키는지 모르나 長期的이고 動態의인 立場에서 본다면 資本家の 利潤은 上昇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맑스」는 實際面에서 資本主義 發展初期의 經濟現象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部分的으로 開發途上國家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은 勞動過剩現象이 일어 날런지 모르나 工業化의 進展으로 因한 勞動力的 過剩狀態로 부터 勞動力的 不足事態로 轉換되고 勞賃도 上昇一路에 있음은 오늘날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否認할수 없는 事實이라 할수 있다.

나. 改革의 대두와 「브레즈네프」-「코시긴」路線

東歐諸國의 自由化 氣風은 蘇聯의 國內的인 自由化에 對한 大衆의 要請과 無關할수 없다.

數年前부터 始作된 蘇聯의 經濟改革은 現時點에서의 政治의 自由化와 直接的으로 連結될수는 없으나 將來의 政治의 自由化를 約束하는 것이 기도 하다. 經濟的인 面에서 본다면 蘇聯에 있어 自由經濟論이 대두하게 된 것은 결코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이미 「말렌코프」時代에 始作되었는데 戰後 「스탈린」의 後繼者로서 「말렌코프」가 執權하였는데 1954年 1月에 그는 이미 蘇聯의

經濟가 크게 發展하였으므로 重工業 優先政策을 持續할 必要가 없
어졌다고 論한 바 있다.

그後 「후르시초프」는 漸次 消費財 工業을 重要時하게 되었다.
그는 重工業優先을 認定하면서도 重工業을 消費財 生産의 擴張을
爲하여 利用을 增大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消費財生産의 重要性에 對한 是認이 顯著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브레즈네프」-「코시긴」路線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論爭은 企業運營에 利潤導入에 關한 것
이다. 卽 스탈린時代는 過度하게 中央集權의인 計劃經濟였으므로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그것이 도리어 經濟의 能率을 低下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故로 스탈린式 計劃經濟를 經濟發展에 適應하도록
보다 더 合理化시킬 必要性을 認定하기에 이르렀고 스탈린式 中央集
權의인 計劃經濟를 어느 정도 地方分權化시키고저 하는 생각이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背景에서 1962년에 「리베르만」이 個個의 企業의 利
潤率에 依하여 企業의 實績을 評價하고 또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物的 報償基金을 積立시켜서 經營의 能率을 높인다는 提案을 하였
다. 「리베르만」은 表面上 自由市場을 認定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思想은 相當히 資本主義와 共通의인 것이 있는데 이와같은
「리베르만」의 思想에 對하여 이데오르기의으로 批判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코시긴」은 9月 비로소 現在 實施하고 있는 新經
濟制度를 부분적으로 시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現在의 蘇聯經濟는 「리베르만」의 理論과는 相當한 거리
에 있으며 또 「리베르만」이 主張하듯 分權化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生産力이 發展하고 國民의 消費生活을 더한層 尊重하면 相
當한 變化를 갖어 올것 만은 확실하다.

1967年 6月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가 發表한 「社會主義 革命
50年」에 관한 題제는 「社會主義的 生産의 成長은 蘇聯國民의
物質的 福祉와 文化의 向上을 爲하여 튼튼한 基盤을 造成하였다」
고 論한 바 있다. 萬一에 市場經濟의 原理를 과감하게 導入하여
價格機構가 富의 質과 量을 決定하게 된다면 黨이 國民經濟에 대
한 支配權을 喪失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經濟的 自由化 政策이
限定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現在의 与件에서 必然的인 結果라
아니할 수 없다.

第3章 蘇聯의 經濟計劃과 生産管理體制

가. 年度別 經濟計劃 過程

A. 「빌란」教授는 1965年以來 蘇聯이 實施하고 있는 經濟改革을 評하여 蘇聯政權 成立以來의 세번째로 重要的 意義를 갖는 「革命的 變化」라고 評하고 있다.

第1의 革命的 變化는 1921年 「레닌」의 「新經濟政策」(NEP)이며, 第2의 革命을 「스타린」의 「1次5個年計劃」(1929-32)이라고 보고 第3의 革命을 1965年 9月の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에서 決定된 「코시킨」의 「經濟改革」이라고 말하고 있다.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共産主義經濟理論家들에 依하면 資本主義經濟의 無政府的 性格에 比하여 決定的인 優越性을 갖는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社會主義計劃經濟의 法則은 「均衡된 發展」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蘇聯經濟의 成長率의 大幅의 向上은 「蘇聯經濟의 暴風과 같은 發展」이라고 誇示되었고 資本主義經濟가운데 가장 進歩된 美國에 追跡하고 追越하는 것을 目標로 함과 同時에 成長率은 蘇聯經濟에 있어서 異常的 發展을 表現하는 가장 主要한 目標로 간주, 蘇聯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西歐社會에서도 「成長率病」을 鬧게 했던 것이다.

元來 計劃經濟란 生産과 消費間의 均衡잡힌 發展을 이룩 하도록 計劃되어야 하나 蘇聯의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計劃이라는 美名下的 命令經濟를 실시한 統制經濟였고 國民의 生活水準을 低水準에 抑壓

하며 強制的인 重工業化의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蘇聯에 있어서 經濟計劃은 期間에 따라 長, 短期로 区分할 수 있는데 長期計劃이란 보통 長期的인 經濟發展을 豫測한 것이며 現實的으로 實現하기 爲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61年 10月 第22次 党大會가 採択한 20個年 計劃이 좋은 例인데 이것은 1961年에서 1980年에 이르는 長期的인 展望計劃인 것이다.

다음 中期計劃으로써는 보통 5個年 經濟計劃인 作成되는데 이것은 年次計劃作成의 基礎가 된다. 現在까지 第7次 計劃을 除外한 10次에 이르는 經濟計劃이 모두 5個年計劃이다.

다음 短期計劃으로써는 第2次 世界大戰直前과 戰時中에 年次로 또는 月別計劃이 作成 實施되었으나 1947年 以後 부터는 年次計劃만이 實行計劃으로써 作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5個年經濟計劃이 정기적으로 實施되기는 1929年 4月の 第16次 党協議會와 同年 5月の 第6次 「소비에트」大會에서 採択되어 法令으로 發表된 1次 5個年計劃 以後부터이다.

그러므로 前述한 第1次 5個年計劃 以前을 過渡期의 蘇聯經濟라고 할수 있는데 이時期는 1917年 러시아革命에서 부터 1918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休戰條約과 1920年 赤·白軍間의 內戰終熄에 이르는 소위 戰時共產主義 時期와 1921年 新經濟政策(NEP)을 고비로 하여 經濟的 破局이 收拾되기 始作하여 最初의 5個年計劃이 立案實施되기 까지의 計劃이다.

1917年과 1913年을 比較해 보면 工業總生産은 約4分の 1이

減少되었고 消費財 價格은 1964 - 16年間に 3倍가 등귀한데 比하여 1917年中에 約6倍로 上昇하였던 것이다.

獨逸과 休戰條件이 締結된 1918年 以後에도 蘇聯經濟는 계속 惡化되어 1921年의 工業總生産은 1913年의 3分の 1以下로 低下되었고 1920年度의 穀物生産은 1913年의 半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같은 事實은 赤軍과 白軍과의 內戰 資本主義世界에 依한 封鎖, 1920年度의 肅작등에 基因하지만 同時에 蘇聯當局이 取했던 過度한 中央集權的 經濟管理, 勞動者들에 依한 工業管理參與, 混亂을 極한 無政府的 國有化 政策等에 크게 起因하는 것이다.

(1) 蘇聯經濟의 過渡別

(1次 5個年 計劃, 1929 - 33)

蘇聯의 經濟는 1917年부터 1933年 까지의 「過渡期」와 1933年부터 1940年까지의 「社會主義 確立期」로 分類할 수 있으며 4次 5個年 計劃과 병행하여 1946年부터 1950年까지의 「戰後復興期」와 50年代 後半期부터 現在까지 「制度改革期」等으로 分類할 수 있다. (表 3 - 1)

(表 3-1)

蘇聯의 年度別 經濟計劃 過程

過渡期	(1917 - 1932) 1次 5 個年計劃 (1929 -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1年 新經濟政策 (NEP) 선언 ○ 全面的 国有化의 緩和 戰時共產主義로 부터 後退 社會主義 体制의 정립
社會主義確立期	2次 5 個年計劃 (1933 - 37) 3次 5 個年計劃 (1938 -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政權 樹立以後 最初의 包括的 經濟計劃 ○ 消費財 工業의 比重增大 ○ 2次世界大戰 突발로 中斷 ○ 戰時計劃에 의거 軍需産業에 集中擴大
戰後復興期	4次 5 個年計劃 (1946 - 50) 5次 5 個年計劃 (1951 - 55) 6次 5 個年計劃 (1956 -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勝戰에 힘입어 目標達成 ○ 軍需産業의 縮小 ○ 「스탈린」死後 「마리코프」登場 ○ 消費財 工業의 力點 ○ 農業의 不振으로 因한 計劃目標 未達 ○ 蘇聯共產黨 20次大會에서 「스탈린」批判 ○ 광범위한 制度改革을 試圖 ○ 1959年 7 個年計劃으로 代替
制度改革期	7 個年經濟計劃 (1959 - 65) 8次 5 個年計劃 (1966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鐵鎚 및 化學工業 發展에 주력 ○ 「에너지」源 確保 置重 ○ 1人당 實質所得, 消費生活과 直結되는 指標의 增大 ○ 農業生産의 發展 ○ 計劃管理制度의 改革試圖
	9次 5 個年計劃 (1971 - 75)	

1924年 「레닌」의 死亡後 「스타린」이 登場하여 이른바 「一國社會主義論」이 支配하게 됨에 따라서 1925年 12月에 第4次 黨大會를 고비로 하여 蘇聯經濟는 工業化 時期로 進入한다.

그後 1929年에 採択한 1次 5個年 計劃은 大規模工業의 生産目標에 있어서는 最初의 2年間은 量的目標에서 計劃量을 돌파하였으나 3次年度와 4次年度에는 計劃目標의 半에도 미달하였고 最終年度인 1932年度에도 計劃目標의 절반에 미달하였다.

그러나 前述한 1次計劃은 生産力의 發展이나 計劃經濟의 觀点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體制의 定立이라는 觀点에서 볼때 極히 主要하다.

(2) 社會主義 確立期

(가) 2次 5個年 計劃 (1933 - 37)

社會主義確立期の 2次 5個年 計劃은 1次 5個年 計劃에 比하여 2倍로 投資를 增大하였고 特히 工業内部에 있어서 生産財 工業部門과 消費財工業部門의 構成比를 1次計劃의 6 : 1로 부터 4 : 1로 大幅 改善하여 消費財生産의 比重을 높였다. 또한 2次 5個年計劃은 蘇聯의 政權樹立後 最初로 經濟全般을 包含한 經濟計劃이었으며 經濟的으로 볼때 이 時期에 經濟各部門의 社會化가 顯著하게 進展되었으며 1次 5個年計劃과 2次 5個年計劃의 実績比較는 다음과 같다. (表 3-2)

(表 3 - 2)

1. 2 次 5 個年 計劃의 実績比較

	1 次 5 個年計劃 (1932 年度 実績)	2 次 5 個年計劃 最終年度 (1937 年度 実績 및 增加率)
工業總生産高 (億, 圓)	433 (100 %)	955 (220 %)
生 産 財 (")	231 (100 %)	552 (239 %)
消 費 財 (")	202 (100 %)	403 (200 %)
電 力 (10 億 kWh)	135 (100 %)	364 (270 %)
石 炭 (100 萬 t)	64.3 (100 %)	127.9 (199 %)
石 油 (100 萬 t)	22.1 (100 %)	28.5 (129 %)
銑 鐵 (100 萬 t)	6.2 (100 %)	14.5 (234 %)
鋼 鐵 (100 萬 t)	5.9 (100 %)	17.7 (300 %)
毛 織 物 (100 萬 M)	88.7 (100 %)	108.3 (122 %)

(나) 3 次 5 個年 計劃 (1938 - 42)

第 3 次計劃은 2 次世界大戰으로 中斷되었고 1940 年까지의 実績만이 論議될 수 있다. 工業生産의 增加目標은 5 年間 92 % 年平均 14 % 의 增加目標가 策定되었고 그中 生産財와 消費財의 差異는 即 生産財 工業에 集中은 戰爭수행을 爲한 軍需産業의 強化라 할 수 있다. 1938 年에서 1940 年에 이르는 期間中 工業總生産高의 年平均 增加率이 13 % 인데 比하여 軍需産業의 增加率은 平均 38 % 에 達하고 있다.

(3) 戰後復興과 4次 5個年計劃

(가) 4次 5個年計劃 (1946 - 50)

4次 5個年計劃은 戰勝의 여세에 힘입어 一般國民의 積極的 參與가 이루어진 結果 大体로 達成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4次計劃의 初期는 戰時經濟로 부터 平和體制로의 回復期였고 軍需 産業이 急速히 縮小된 結果 1940年을 100으로 해서 全体로써의 工業生産高는 1945年에 92, 1947年에 77로 低下하였다.

그러나 2次大戰으로 因한 物質的 破壞 1,280億弗, 軍事費支出 3,750億弗 合計 4,750億弗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니와 이것은 3次에 걸친 5個年計劃의 總投資額을 6배나 超過하는 것이다.

(나) 5次 5個年計劃 (1951 - 55)

5次 5個年計劃의 主要指標는 47年度の 「마살프렌」, 49年度の 「크메론」創設 등으로 顯在化한 條件에서 作成되었음이 特徵이다.

1953年 「스탈린」死亡後 首相에 就任한 「마렌코프」는 消費財 生産에 力點을 둠으로써 그結果 蘇聯當局은 同年 10월에 消費財의 増産計劃을 發表 5個年計劃을 修正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이같은 計劃目標는 하나도 達成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5個年計劃의 原案에도 未達하였던 바 輕工業과 食品工業의 이같은 不振은 이部門의 原料를 供給하는 農業의 落後性에 基因한다. 따라서 1955年初에 「마렌코프」가 失脚하자 새로히 党第1 書記로 登場한 「후루시초프」가 各終의 農業振興에 注力한 것은

以上과 같은 事實에 근거한다. (表 3 - 3)

(表 3 - 3) 3, 4, 5, 6次 5個年計劃의 実績比較

	3次計劃 實績 (1940年度)	4次計劃 實績 (1950年度)	5次計劃 實績 (1955年度)	6次計劃 實績 (1960年度)
工業總生産 (10 億 루블)	137.5	239.6	443.2	1,552
生産財工業部門 (")	83.9			
消費財工業部門 (")	53.6			
石 炭 (100 万 t)	166.0	261.2	391.3	509.6
石 油 (")	31.1	37.9	70.8	147.9
電 力 (10 億 KWA)		91.2	170.2	2,932
鋼 鉄 (100 t)	18.3	27.3	45.3	65.3
시멘트 (万 t)	5,700	10,194	22,784	

(다) 6次 5個年計劃 (1956 - 60)

1956年 2月の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始作된 「스 타린」에 대한 批判은 蘇聯의 政治, 經濟, 社会, 文化等 모든面에 걸치는 広範한 運動으로 發展하였고 經濟面에서는 管理計劃의 機械, 方法的 劃期的 改革이 많이 試圖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試圖들은 이렇다 할 성과없이 모두 失敗해 버렸고

지난 1959年 부터 새로운 7個年計劃으로 代替하지 않을 수 없는 窮地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같은 現象은 結局 6次 5個年計劃이 初期부터 各種 欠陥을 가지고 있었다 할수 있다.

따라서 6次 5個年 計劃의 實施期間은 1956年부터 59年까지 3個年間に 不過하다.

(4) 制度改革期

(가) 7個年 經濟計劃 (1959 - 65)

6次 5個年 計劃이 많은 欠陥을 안은채 3年만에 中斷되고 1959年부터 65年까지의 7個年計劃으로 代替되었다. 이와같이 6次 5個年 計劃이 再編成이 不可避했던 主要原因으로서는 同計劃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가지 欠陥에 起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資源의 利用이 不合理했다는 點과 未完成의 建設이 累積되었다는 點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7個年計劃의 主要指標으로써는 東部地方의 自然資源의 開發, 鐵鎔産業의 急速한 發展, 化學工業의 發展, 에너지源의 確保를 들 수 있다. 그러나 工業分野의 成長低調와 農業의 停滯는 同期間中 約 1,000萬屯이 넘는 穀物을 輸入하지 않을수 없었고 工業分野에 있어서도 重工業優先策이 緩和되고 消費財工業에 置重하였으나 計劃의 차질로 因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農業政策의 失敗는 1964年 10月 「후르시초프」의 失脚을 가져 오게 하였다.

(나) 8次 5個年 計劃 (1966 - 70)

7個年 經濟計劃의 失敗와 「후르시초프」의 失脚으로 經濟體制 內部的 矛盾을 제거하고 制度의 改革을 斷行하기에 이르렀

는데 管理制度의 改革에 있어서는 生産力の 發展, 經濟構造의 複雜化, 經濟規模의 擴大라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計劃當局이 個別企業의 細部 活動까지 掌握하고 計劃을 作成, 指導한다는 사실은 不可能 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單純한 生産의 增加가 아니라 效率인 生産發展을 問題視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經濟政策의 전환은 1968年度의 「체코」의 사태와 70年度의 「폴란드」暴動과 關係된다. 卽 이같은 事態는 넓은 意味에서 經濟政策의 再檢討와 修正을 要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8次 5個年 計劃의 主要目標은 工業成長率은 7個年 計劃과 거의 同一한데 比하여 國民所得은 7個年 計劃을 훨씬 上廻하고 農業增産에 力點을 두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人口·1人當 實質所得, 勞動者, 事務員의 平均賃金, 「콜호스」員의 所得等 消費生活과 直結되는 指標에 重點을 두었고 8次計劃 期間中の 主要施策인 計劃管理制度의 改革도 1966년부터 漸次 導入 되기 始作하였으나 그 改革의 進展은 東歐와 달리 順調롭지 못하였다. (表 3-4)

(表 3 - 4) 7 個年計劃 및 8 次 5 個年計劃 成果

	單 位	1958 年 (實 績)	1965 年度 實 績	1965 年 実績基準	8 次 5 個年 計劃(1970) 年実績)
工業總生産高	(%)	100	184	100	150
生産財工業	"	100	184	100	151
消費財工業	"	100	196	100	149
石 炭	(100 万 t)	493	578	100	624
石 油	"	113.2	243	100	353
電 力	10 億 KWH	235.4	507	100	740
綱 塊	(100 万 t)	54.9	91	100	116
시 멘 트	(100 万 t)	32.3	72.4	100	95

나. 蘇聯經濟計劃의 作成方法

(1) 資本主義體制와의 比較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經濟決定機能이 原則적으로 個人이나 企業間에 分散되고 있고 資源配分은 「市場機能」을 통하여 自律적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의 經濟計劃은 原則적으로 巨視的 側面에 限定되며 政府가 財政·金融面의 政策을 通하

여 通貨 信用을 間接的으로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計劃目標을 實現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經濟體制 特히 蘇聯에 있어서는 經濟計劃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더불어 比대한 階層的 管理機構에 基礎하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計劃에 關한 責任을 지고 있는 中央計劃當局이 國家資源의 大部分에 關한 處分權을 가지고 있으며 資源配分の 窮極的인 決定權은 共產黨中央委員會에 있다. 왜냐하면 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 決定된 指針에 따라 閣僚會議, 各省, 「고스프린」을 통하여 詳細한 國民經濟計劃이 作成되고 있다. 이와같이 決定되는 經濟計劃은 生産, 分配, 消費, 賃金, 價格等 經濟의 모든 部門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巨視的 側面뿐 아니라 企業이나 協同農場等 微視的 側面に 이르기 까지 包括하고 있으며 이같은 協同農場이나 個個企業에 주어지는 計劃은 中央計劃委의 指令的 性格을 더우고 있는 것으로서 法的 義務가 隨伴되고 있다.

이와같이 蘇聯의 經濟計劃이 巨視部門으로 부터 微視部門에 이르기 까지 包括하고 있는 結果 蘇聯의 中央當局은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의 市場機構의 役割을 直接 担当하게 된다. 따라서 經濟諸量의 相互關係를 計劃化하는 것은 極히 複雜한 作業이라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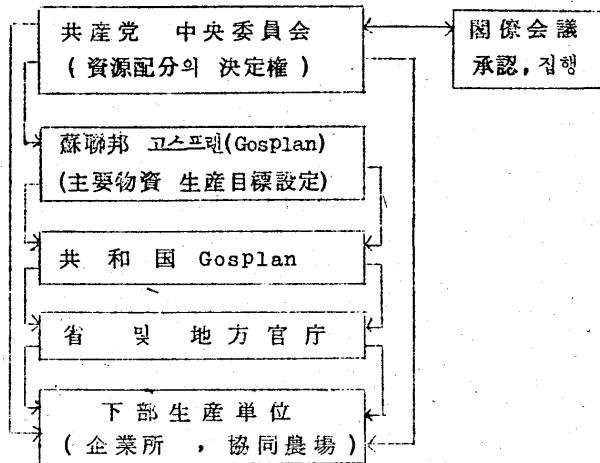
蘇聯邦 「고스프린」 國家計劃委는 各 共和國의 「고스프린」으로 부터 基礎 生産物의 需要推定值를 提示받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基礎 生産物의 數字와 物財балан스를 作成한다. 그러므로 黨과 政府가

決定한 政治的 經濟的 目標에 따라서 主要物資의 生産目標을 定하고 個個 物資의 需給關係를 定하는 것이다.

이같은 計劃作成의 開始는 原來 中央當局의 責任이 있으나 1959年以來 上·下에서 同時에 開始하는 것이 慣行으로 되어 있다. 計劃은 前年度 4月에 作成이 開始되어 10月에 完結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 關여하는 機關으로써는 聯邦「고스프렌」, 共和國「고스프렌」, 省 및 地方官廳, 企業을 들수 있다.

下部生産單位인 企業은 前年度実績, 作成年度의 計劃 現在의 生産能力等を 고려하여 次年度의 生産計劃을 作成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次年度에 達成할 生産目標과 함께 그達成에 必要한 上部에 對한 支援요구가 表示되고 이같은 計劃은 一定한 節次를 밟은 뒤 省과 地方官廳에 提出되고 企業과 官廳間의 折衷을 거쳐 共和國「고스프렌」에 提出된다. (表 3-5)

(示3-5) 蘇聯의 經濟計劃 作成過程



따라서 共和國 「고스프렌」은 聯邦「고스프렌」에서 下達된 統制 數字와 省으로 부터 提出된 資料를 調整하여 8 月頃에 共和國레벨의 一般計劃을 完成한 後 聯邦「고스프렌」에 提出하게 된다. 이같이 提出된 各共和國 經濟計劃을 總括하여 最後로 聯邦「고스프렌」이 蘇 聯全體의 計劃案을 作成하고 閣僚會議의 承認을 받아 確定되는데 時期는 대체로 10 月頃이다.

(2) 經濟計劃 및 管理制度의 改革

蘇聯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은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더불어 비 대한 階層的 管理機構위에 基礎를 두고 있는데 이같은 中央集權의인 經濟計劃方式은 經濟發展이 이루어 지기 以前에 初期에 있어서는 資源動員과 配分에 있어서 多小의 利點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으나 全體經濟의 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構造의 高度化됨에 따라서 많은 難點을 內包하게 된다.

이같은 內部的 矛盾을 解決하기 爲하여 內의인 面에서의 制度의 改革을 끊임없이 試圖하여 왔는데 特別히 「스탈린」 死後 國民經濟의 運營管理에 關한 여러가지 欠陥을 극복하기 爲한 試圖가 行하여 졌다.

「스탈린」式 計劃, 管理의 欠陥은 資源配分에 있어 過度한 中央集權의 統制, 官僚主義의 非能率, 決定機能의 分散欠如 등으로 集約된다. 따라서 1954 年 1 月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가 이같은 欠陥을 正式로 지적한 이래 蘇聯當局은 同年 10 月에 이르기 까지 中央에서 부터 地方에 이르기까지의 行政組織을 整備하고 上述한 成果에

의 거하여 行政管理機構의 肥大化 經濟指導方法의 官僚性等을 指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指摘에 따라 省의 權限擴大, 各共和國省의 權限擴大 등 措置를 講究함과 同時에 1955年度에는 基本投資, 企業再建, 物資의 販賣, 貨金 및 融資의 部面에 關한 企業의 權限을 大幅 擴張함으로써 過度한 中央集權化를 緩和하고 企業利潤의 一部를 自體의 基金化하도록 許容함으로써 企業의 創意的 活動을 조장하고 勞動의 生産意慾增大를 試圖하게 되었다.

또한 「고스프렌」 자체도 1955年度에는 機構의 改革이 있었는데 長期計劃과 短期計劃作成이 分離되고 「고스프렌」은 長期計劃만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스프렌」은 長期計劃의 作成과 主要經濟問題研究에만 專念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現象은 當時 蘇聯經濟에 나타난 部分的 不均衡이 短期的이 아니라 長期的인 側面에서 解決되어야만 한다는 새로운 認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長. 短期經濟計劃作成을 別個의 獨立된 機關에 分離시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여 今後 不過 2年만에 兩機能은 再次 「고스프렌」에 統合되고 말았다.

第4章 蘇聯經濟의 主要部門別 現況 및 問題點

蘇聯은 1970年度の 8次5個年計劃에 이어 現在 9次5個年計劃 (1971 - 75)을 推進했다. 9次5個年計劃의 主要目標로서는 生産의 高率成長과 效率의 向上 科學技術의 進歩와 勞動生産性의 向上인데 이같은 目標을 實現하기 爲하여 1971年 3月 第24次 共產黨大會에서는 消費財의 增産과 技術革新에 依한 産業間 構造의 高度化, 勞動生産性의 向上, 管理計劃制度의 效率의 改革을 黨의 指令으로 삼았다.

가. 國民總生産 및 豫算規模

國民所得 或은 總國民所得 (Gross National Product)라 함은 흔히 一國의 國民經濟가 特定期間에 生産한 財貨와 用役의 總額을 貨幣單位로 算定한 總額이며 所得計定上 推計過程에서 中間財의 重復計算을 除外 함으로써 순수한 附加價值 (NET VALUE ADDED)의 總額을 말한다. 1)

그러나 經濟體制가 相異한 自由主義經濟體制와 社會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는 國民所得의 概念이 同一하게 適用되지 못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는데 이같은 事實은 두말할 것도 없이 國民所得의 算定概念

註 1) Kuznet, Simon: National Income: A Summary of Finding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46

이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即 蘇聯과 같은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國民總生産의 概念이 社會總生産의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自由主義社會의 GNP概念과 根本적으로 相異한 점은 社會總生産은 國民經濟의 모든 生産單位의 總生産量을 合計한 額數이며 따라서 計定上에 있어서 모든 生産單位는 外部로 부터 얻은 投入要素의 價値를 排除하고 있지 않는 點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額數를 算定하는데 있어서 派生되는 重複計算의 정도는 算定方法에 따라 相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는 一國의 國民經濟가 發展을 거듭할수록 一次産業의 比重이 적어지고 相對적으로 二次産業과 三次産業의 比重이 커지고 있는데 比하여 共產主義諸國의 「社會總生産 (Gross Social Product)」概念에 있어서는 3次産業部門 (Service Sector)을 除外하고 있는 것이 特徵인데 이러한 現象은 主로 「맑스」理論에 연유하고 있다. 「맑스」에 依하면 生産 或은 價値는 「生産的 勞動」(Productive labor)에 依해서 發生한다는 事實이며 生産的 勞動이라 함은 人間의 慾求를 만족시키기 爲하여 生産手段을 統制 或은 變形함으로써 物資生産에 投入되는 勞動이라 定義되고 있다. 따라서 物資産業部門이 除外되는 것이 原則이다.²⁾

또한 自由主義諸國에 있어서는 國民所得은 目的에 있어서 여러 形態로 變한다. 「總生産概念」이라든가 또는 「純生産」「經常價値」

註 2) R.W.Cambell: Accounting in Soviet Planning and Management, Havard University press, 1963

或은 「要素費用單位」等 여러가지 形態로 評價되는데 反하여 蘇聯에 있어서는 훨씬 硬直的 性格을 띠우고 있다.

蘇聯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物質生産만을 包含한다는 原則下에서 生産의 「純額」 即 가가상각을 除外하고 計算하고 있으며 國內總生産 即 最終受領인이 누구이든 間에 國內에서 生産된 總額을 計上하고 있으며 끝으로 實際로 去來된 價格에 間接稅는 包含되나 補助金은 고려하지 않고 計上하는 점이다.

이와같이 最終生産品을 實際로 去來하는 價格으로 國民所得을 計上한다는 事實은 몇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 이들 問題點은 主로 去來稅의 賦課가 平衡을 잃고 있는데에서 야기되며 첫째 生産的인 側面에서 볼때 農業部門은 工業部門에 比하여 過少評價되고 있다. 왜냐하면 工業部門에 比하여 農業部門은 보통 去來稅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農産物價格은 生産原價 以下로 策定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GNP 形成概念上的 問題點을 前提로 하고 1971年度 蘇聯의 GNP를 본다면 約 4,500 億弗로 推定되며(表 4-1) 蘇聯을 除外한 東歐諸國의 GNP 合計는 約 1,600 億弗로 推定되고 있다.

(表 4-1) 蘇聯의 最近數年間 經濟成長率

国 別	年 度	經濟成長率 (%)
蘇 聯	1968	8.2
	1969	4.8
	1970	8.7
	1971	6.0
	1972	4.0
	1973	5.8
	1974	5.0
	(平均)	(6.9)

資料：COMECON 統計年鑑，1971年

共産國諸國의 經濟成長은 先進資本主義諸國인 西獨 (4.7%) 이나 美國 (3.3%) 보다는 높은 水準이나 日本 (12.7%) 에 比하여서는 顯著히 낮은 것이며 伊太利 (6.0%), 仏蘭西 (5.7%) 「이스라엘」 (7.9%) 등과 비슷한 成長実績임을 볼수 있다. 蘇聯에 있어서 歲出豫算制度를 본다면 ① 經濟計劃過程에서 支給되는 財貨生産資金 ② 社会 文化活動費 ③ 政府行政費 ④ 國防費 ⑤ 其他의 項目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支出을 爲한 歲入은 ① 社会主義經理收益金 (企業利潤의 控除) ② 去來收益金 ③ 企業에 依한 其他 支払 ④ 個

人所得稅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蘇聯共產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私有財産」과 「價格機能」이 認定되지 않고 資源의 生産, 分配, 消費의 過程이 「國家計劃委員會」에서 劃一的으로 統制되고 있기 때문에 國家財政은 國民經濟活動에 決定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69年度 蘇聯의 歲入, 歲出의 構造를 보면 (表 4-2)

(表 4-2) 蘇聯의 歲出入 構造 (年度別 變遷過程) (%)

收 入	1933	1950	1960	1969	支 出	1933	1950	1960	1969
社會主義經理收益金	7	10	24	36	人民經濟費	60	38	44	43
(利潤控除)					社會文化	15	28	34	38
去來稅	59	56	41	32	活動費				
企業에 依한	16	19	26	23	行政管理費	4	3	2	2
其他支私					國防費	—	20	13	13
個人所得稅	9	6	2	2	其 他	21	11	7	5
政府借入	—	—	—	—	總 計	100	100	100	100
總 計	100	100	100	100					

社會主義經理收益金이 收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36%이고, 國營企業 또는 工場이 商品을 生産하여 商業機關에 引渡할때 國家가 徵收하는 去來稅가 32%, 企業에 依한 其他의 支私이 約 23% 個人所得

稅는 不過 2%에 不過하다.

個人所得稅는 住民稅라고도 하는데 蘇聯에 있어서 매우 낮고 個人財產의 蓄積을 막기 爲하여 보통 累進稅率을 適用하고 있으며 蘇聯의 경우 이같은 累進稅率은 最高 69%에 이르고 있다.

蘇聯의 歳出構造는 財貨의 生産을 爲한 資金支給 即 人民經濟費가 約 40% 教育, 保健, 住宅等 社會文化施策費가 38% 政府行政管理費 2%, 國防費 13% 등으로 区分된다.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總支出에 있어서 13%에 達하고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美國의 9.2% 共產國諸國인 헝가리 3%, 체코 7% 불가리아 4%에 比하여 顯著히 높은 水準이라 아니할수 없다. (表 4-3)

(表 4-3) 蘇聯 및 主要共產國諸國의 國防費 負擔率 (1968年)

國 別	國防費支出額 (10,000 弗)	國防費 / GNP	1人當國防費 負擔率 (\$)
蘇 聯	39,780	9.3	169
불 가 리 아	228	2.9	27
체 코	1,538	5.7	105
東 獨	1,715	5.7	100
헝 가 리	370	2.9	36
폴 랜 드	1,830	4.8	57
루 마 니 아	551	3.0	28
유 고	543	5.7	24

資料 : 「 Military Balance », 1969 - 70 .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69

나. 資本蓄積率과 工業部門의 現況

(1) GDP의 産業別 構成

資源配分에 있어서 重工業의 편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맑스」理論에 基因하는 것인데 「맑스」에 依하면 經濟成長을 促進시키기 爲한 最善의 方法은 資源配分에 있어서 生産財 生産에 보다 많은 部分을 割當하고 消費財 部門生産에 割當分을 減少시켜야 窮極의으로 國民經濟에 成長率을 極大化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蘇聯에 있어서 이같은 原理는 꾸준히 採択되어 이제껏 8次에 걸친 5箇年計畵 수행에 持續的인 重工業優先策에 편중해 왔다. 1970年度 Gross Domestic Product의 産業別 構成比를 본다면 農業 22% 工業 51%이었고 60年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農業이 20% 工業이 52%였다. (表 4-4)

産業構造別 變動狀況을 보면 60年代를 通해서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等 4個國에 있어서는 工業의 比重이 著실히 增加된 反面에 「체코」 「헝가리」等은 工業의 比重이 減少되었는데 이는 「서비스」 其他部門의 比重增加로써 相殺되었다.

蘇聯의 경우는 工業의 比重面에서 別다른 變動을 찾아 볼수 없다. 一般的으로 共產國家들의 共通의인 現象은 農業의 比重이 위축되었다는 點을 볼수 있다.

(表 4-4) 共産國에 있어서 GDP의 産業別 構成

國 別	農 業		工 業		其 他	
	1960	1970	1960	1970	1960	1970
蘇 聯	20	22	52	51	26	26
불가리아	32	23	46	49	22	29
체코	16	11	63	61	22	27
西 獨	17	12	58	63	28	29
헝가리	23	18	59	43	7	39
폴란드	26	17	47	52	27	32
루마니아	33	24	44	57	24	19

註：(1) 其他는 建設業；都小売業，運輸，通信을 包含

(2) 農業은 수렵，林業，漁業이 包含됨

(2) 主要部門別 生産実績

앞서 蘇聯에 있어서 GDP 上的 産業別構成比를 보았거니와 蘇聯은 現在 1971 년부터 75 年度를 目標로 하여 9 次 5 個年計劃을 實施했는데 同計劃의 基本目標은 첫째 1971 年 - 15 年間に 生産財生産의 45% 増加에 對하여 消費財生産 46%의 増加를 計劃하고 있다.

둘째 勞動生産性的 向上이 크게 強調되고 있는데 이것은 蘇聯의 勞動力供給이 限界에 이르렀고 非生産部門의 勞動力의 需要가 增加하기 때문이다.

세째는 蘇聯經濟가 当面하고 있는 生産性的 向上을 爲하여 이미 施行되고 있는 經濟改革을 成功시켜 國民의 消費生活를 向上시킴으로써 勞動意慾을 높이고 物質的 刺戟을 動員하기 爲한 方便으로서도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經濟部門의 重要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消費財産業의 資源配分增大는 必然的 現象이라 아니 할수 없다.

70 年度の 電力生産量은 7 千 4 百億 KWH 에 達하고 있으며 鋼鉄生産은 粗鋼基準으로 1 億屯을 능가하고 있다. 特히 鋼鉄生産은 重工業優先策과 軍需産業에 直結되기 때문에 今後에도 계속 急速히 發展할 것으로 推測된다. (表 4 - 5)

自動車産業은 아직도 100 万台에 미달하여 發展된 鋼鉄産業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같은 実績은 美國, 日本, 西獨, 伊太利等 西方諸國에 比하여 월등히 낮은 數字이다.

(表 4-5) 蘇聯의 主要工業部門 生産実績 (70年度)

		單位	生産高
電	力	億 KWH	7,400
石	炭	100 万 屯	624
石	油	"	353
鐵	鐵	"	116
세	멘 트	"	95
化	学 肥 料	"	55
織	物	10 億 M	8.9
化	学 織 維	万 屯	62.3
타	이 어	100 万 屯	34.6
自	動 車	万 台	91

1961年 부터 65년까지의 蘇聯의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增加指數를 보면 39% : 24%로 消費財工業의 增加率이 낮은 水準에 있고 生産財工業에 있어서도 增加率이 가장 높은 部門이 電力의 72% 石油, 天然 GAS, 金屬 및 非金屬部門 化学工業部門이다. (表 4-6)

(表4-6)

蘇聯的工業生產指數

(%)

	1960	1961	1962	1963	1965	1966
工業原料製	100	106.5	113.8	121.4	130.1	139.5
電力	100	112.1	126.5	140.7	156.4	172.5
石炭	100	100	102.0	105.0	109.2	113.7
石油天然 GAS	100	112.3	127.4	141.6	155.1	169.0
鐵金屬	100	108.1	116.8	124.1	134.0	146.1
非鐵金屬	100	114.9	120.9	130.9	138.4	150.0
木材製品	100	101.3	105.3	111.2	116.4	119.2
紙類	100	105.9	113.4	119.7	128.6	145.5
建設資材	100	110.5	120.4	127.2	135.7	146.2
化學	100	107.9	117.6	129.4	145.4	162.2
非耐久消費材	100	105.3	110.3	111.6	116.7	124.7
輕工業	100	103.2	107.5	109.8	114.4	116.9
食品工業	100	108.1	114.1	114.2	119.8	135.5

資料：New Direction of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y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3) 資本蓄積에 對한 工業成長의 둔화

蘇聯에 있어서 投資政策은 그들 社會主義計劃經濟의 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計劃的 資源配分에 依하여 이루어 진다.

2次世界大戰 以後 60年代까지의 資本의 蓄積은 西歐諸國에 比하여 월등히 높고 美國에 比하여 總固定資本形成이 1940年부터 1962年에 이르는 사이에 約 3倍에 達하고 있다.

특히 鐵物 燃料産業을 爲始하여 鐵鉍工業, 冶金工業의 資本蓄積度가 높은 것을 볼수 있으나(表 4-7) 反面에 單位當 生産性은 低水準임을 볼수 있다.

우선 工業産出의 年間平均 增加率은 1951-55年間に 있어서 約 11%로 부터 1956年-61年間에는 9%로 다시 62年-65年間に 7%로 低下한 事實을 들수 있으며 反面에 雇傭에 對한 資本蓄積은 比較的 充足한 增加를 이루어 왔는데 勞動力의 年間 增加率은 2.4%에 比하여 生産的 資産의 年間 純增加率은 約 12%에 達하고 있다.

總要素生産性의 成長率은 1950年代를 通하여 上昇傾向을 보이다가 1956-58年頃에 「피크」에 達했고 1959-61년에는 서서히 下落하기 始作했고 62-65年頃에는 急激히 下落하였다.

이와같이 資本蓄積에 對한 産出高의 低下는 2가지 事實에 基因하는데 첫째 50年代의 東·西冷戰의 激化現象과 特히 韓國戰爭을 前·後한 軍需産業과 機械製造業에 對한 支援体制의 加速化는 産業間의 不均衡으로 因한 生産性의 둔化現象을 招來하였고 둘째로는 西方側에 對한 封鎖体制下에서 새로운 技術革新에 차질을 가져 온 事實을

(表4-7) 資本生産低下에 関한 一部指数 (1940 = 100)

	1940	1950	1955	1962
(I) 固定資本蓄積指数				
鈹物燃料産業	100	148	174	319
鉄冶金	100	148	251	539
運輸・通信	100	124	206	286
(II) 三産業産出高指数				
鈹物燃料	100	131	202	328
鉄冶金	100	149	247	416
運輸・通信	100	146	239	434
(III) 三産業에 对한 資本对産出高比率				
鈹物燃料	100	113	86	97
鉄冶金	100	100	102	130
運輸・通信	100	85	86	66
(IV) 資本蓄積单位当 GNP 指数				
鈹物燃料	100	84	99	81
鉄冶金	100	84	69	48
運輸・通信	100	100	83	90

資料: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y]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6

달수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必然的으로 全体經濟發展에 둔화추세를 야기 시키고 말았다.

194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1962年度까지의 美·蘇의 GNP增加率は 蘇聯이 多少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同期間의 固定資本蓄積率は 美国에 比하여 約 3倍에 達하고 있으며 (表4-8).

따라서 固定資本蓄積 單位當 GNP成長寄与率は 美国에 比하여 절반에도 未達한다. 이러한 現象은 바꾸어 말하면 蘇聯의 資本單位當 生産性이 美国에 比하여 월등히 낮은 事實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表4-8) 要素生産力 變化에 關한 美蘇間比較 (1940=100)

	蘇 聯			美 国		
	1940	1955	1962	1940	1955	1962
(I) 産出高에 대한 主要投入指數						
G.N.P	100	172	257	100	193	233
固 定 資 本 蓄 積	100	239	419	100	140	169
基 本 金 屬 消 費 量	100	230	396	100	212	215
貨 物 輸 送	100	239	434	100	206	225
固 定 資 本 對 勞 働 比 率	100	215	332	100	105	118
(II) 主要投入單位當 G.N.P						
1 人 當 G.N.P	100	154	204	100	145	164
固 定 資 本 蓄 積 單 位 當 G.N.P	100	72	61	100	138	137

다. 集團化 經營体制과 農業生産의 沈滯

60年代 後半부터 西方國家들의 關心을 끌어 온 蘇聯經濟의 體質改善이 지난 72年度에는 農·工不振에 刺戟받아 具體化되어 가고 있다.

經營에 있어서 利潤制度의 導入을 爲始하여 生産成果에 따른 價與金制度의 實施, 農士의 個人所有認定等 資本主義制度가 部分的으로 適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다. 지난 1972年度의 蘇聯經濟는 農業生産의 不振과 이로 因한 工業生産의 停滯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며 今年度에도 영향이 크게 作用되리라 본다. 이같은 蘇聯의 經濟危機는 蘇聯뿐 아니라 오늘날 全世界로 波及되어 가고 있다. 昨年度(72年)의 農業에 있어서 大凶作을 겪은 蘇聯은 穀物 1億6千萬屯 밖에 生産치 못해 美國, 「캐나다」, 濠洲, 仏蘭西等 西方諸國으로 부터 約 18億弗에 相當하는 3,000萬屯의 小麥, 옥수수等を 購入함으로써 世界的 穀物價格의 急增은 食肉의 國際價格을 72年中 約 20%나 昂騰케 하는 連鎖波動을 일으켰고 大量의 穀物輸送으로 因한 海上運賃까지 오르게 하는 現象을 빚었다.

73年度엔 大豐作으로 2億1千萬屯의 穀物生産을 한 이례적 記錄을 했지만 蘇聯의 農業生産의 成長率은 70年度의 10.3%라는 高度成長에서 71年度의 「제로」成長, 72年度에는 -4.6%를 記錄 凶作의 정도를 짐작케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農業部門의 不振은 工業分野에도 영향을 미쳤고 蘇聯中央統計局 發表를 보면 72年度의 工業總生産伸張率은 70年度의 7.8%에 比해 6.5%로 鈍化되었으며

특히 農産物作況과 直接關聯이 있는 輕, 食品工業은 平均工業成長率에도 未達하고 있다.

「코시킨」은 蘇聯革命 50週年記念論文에서 初期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는 生産増大가 勞働力の 增加 即 外延的 要素에 依해 達成되었으나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近代的 技術이 整備됨에 따라 勞働生産性의 向上이 重要하다고 認定하고 있다. 왜냐하면 蘇聯의 勞働生産性 向上은 72年中 工業部門이 5.2% 建設部門 5.4% 鐵道輸送 3.8%로 낮은 狀態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農産物凶作이 日氣不順이라는 自然條件에도 影響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農業機械化가 效率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人爲的 欠陥 때문이기도 하다.

肥料 農藥의 供給이 充分치 못하고 作業의 機械化率도 耕作, 播種 施肥, 收穫等은 81-100%의 高度性을 보이고 있는데 比하여 一貫 作業에 依한 穀物調整, 荷役, 乾草圧搾等은 約 12-20%로 낮으며 畜産機械도 近代化되지 못하고 있는 事實이다. 이같은 經濟狀態를 克服하기 爲하여 蘇聯은 約 50億弗 以上을 美國에 起債하고 美·日과 提携 「시베리아」 開發을 서두르면서 對內的으로는 目標達成 督勵體制로 부터 利潤制度로 移行하고 計劃目標을 期限前에 達成한 企業에는 賃金支給等 共產主義 無償勞働으로 부터 物的 剝奪의 方向으로 轉換하고 있다. 따라서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集團農場에서 일하면서 어느정도의 個人農地所有를 認定해 줌으로써 農民의 耕作意慾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1) 蘇聯의 農業經營體制

蘇聯의 農業經營體制는 主로 「協同農場」(KOLHOZ) 및 「國營農場」(SOVKHOZ) 과 「個人農」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1920年代末의 1次5個年計劃은 農業經營의 集團化目標을 20%로 設定하였으나 結局 61%가 集團化 되었고 商品穀物에 있어서 集團化部門은 約 84%의 市場占有率을 차지 하기에 이르렀다.

2次 및 3次5個年計劃期間中에 農業의 社會主義化가 거의 完成되었다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는데 農業의 集團化率이 1932年度의 61.5%에서 1937년에 93%로 上昇하였고 耕地面積의 集團化率도 77%에서 99.1%로 上昇했으며 1940年の 農家の 集團化率은 96.9% 耕地面積은 99.9%에 達함으로써 社會主義化를 이루었다 할수 있다. (表4-9)

(表4-9) 蘇聯의 農業集團化 過程 및 形態

年 度	集團比率	耕作面積 集團化比率	소호즈 (SOVKHOZ)	코르호즈 (KOLHOZ)	個人農
1次5個年計劃目標 (1928-33)	20 (%)	(%)	(%)	(%)	(%)
1次5個年計劃実績 (192年)	61.5 "	77.7 "			
1937年	93 "	99.1 "			
1940年	96.9 "	99.9 "			
1960年 耕作地 構成			42.7	56.4	1.4

한편 「코르호즈」와 「소호즈」의 区分은 지난 1960年度에 「코르호즈」가 56.4%, 「소호즈」가 42.2% 個人農이 1.4%이던 것이 近來에 와서는 食肉을 爲始한 畜産獎勵策으로 因한 「소호즈」의 比重으로 그 比重이 「코르호즈」보다 增大하고 있다.

(2) 主要農産物 生産実績

蘇聯의 農業生産은 1950年 以來 1965年 사이에 70%의 増加를 이루고 있으나 同期間中 農業의 産出量이 一律적으로 增大한 것은 아니었고 增大額의 約3分の 2는 「스타린」死後 約5年間 1953-58年間에 이루어 졌다. (表4-10)

(表4-10) 農業의 純生産性 指數(1950=100)

年 度	總 計	農 作 物
1950	100	100
1951	94	91
1952	104	102
1954	109	99
1955	126	118
1957	141	126
1959	149	122
1960	150	124
1961	163	135
1962	161	129
1963	153	118
1964	170	157
1965	171	141

資料: Douglas B. Diamond, 「Output, Input and Productivity Trend in Russian Agricultur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6

그以後의 發展은 微微하여 蘇聯支配層의 만족을 止한 現象은 되지 못하고 特別히 1965年度의 1人當 產出量은 1958年度에 比하여 오히려 低下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結局 蘇聯은 食糧需要에 供給이 미치지 못하여 「캐나다」 濠洲로 부터 18億弗에 相當하는 食糧輸入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난 60年代에 있어 化學肥料의 供給增大와 農業의 投資는 60年度에 比하여 65年度에는 75%나 增大시켰고 運輸施設 및 農業의 機械化를 계속 추구해 왔으나 農業의 生産性增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70年度의 最高畝作으로 因하여 穀物生産은 約 1億8千6百萬屯에 達하였으나 72年度에는 穀物の 總生産이 1億6千8百萬屯에 不過했고, 75年度의 目標를 2億屯으로 策定하고 있으나 現在의 추세로서는 豫測하기 힘든 展望이라 아니 할수 없다.

왜냐하면 農業發展에 치중한 지난 7個年計劃에 있어서도 1958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볼때 70% 增大計劃에 比하여 実績은 겨우 14%에 그치고 말았고 特別히 其中에서도 農作物의 生産增大는 7%에 그치고 말았다. (表 4-11)

7個年 經濟計劃期間中 農業發展의 이와같은 失敗는 1人當 農業生産性의 低下가 두드러진 現象이라 할수 있다.

(表 4-11) 蘇聯의 7 個年計劃期間 農業生産의 目標 및 実績

	單位	1958年 実績	1965年 計劃	1964年 実績	1965年 実績
農業總生産	1958=100	100	170	113	114
農作物	"	100		119	107
畜産物	"	100		106	123
1人当農業總生産	"	100	156	102	102
1人当農作物生産	"	100		108	96
畜産物生産	"	100		96	110
穀物生産(公表)	100万吨	134.7	153-172	152.1	120.5
原綿生産	"	4.4	5.7-6.1	5.3	5.7
亞麻纖維	1,000吨	438	580	346	443
野菜	100万吨	14.9	30-32	19.5	17.0
果物	"	6.6	13.9	9.5	-
食肉	"	7.7	16.0	8.3	9.9
牛乳	"	58.7	100-105	63.3	72.4
계란	10億個	23.0	37.0	26.7	29.0
羊毛	1,000吨	322	548	341	356

資料: George Gatts: [Soviet Agriculture and 7 year plan]
 New Direction in the Soviet Economy, [Studies Prepared
 for the Subcommittee on Foreign Economic Polici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6.

그러므로 蘇聯에 있어서 農業部門의 生産性を 增大시키기 爲하여서는 무엇 보다도 ① 広範圍한 分野에 걸쳐 生産技術의 改善과 새로운 知識의 應用이 必要로 되고 있으며 ② 勞動力의 教育水準과 技術水準의 向上 ③ 管理職員의 訓練과 熟練의 進歩 ④ 生産管理 및 補償制度의 改善 ⑤ 個人農場 規模의 擴大 및 農業機械 修理施設에 注重하여 規模의 適正化를 이루는 일이 時急하다 할수 있다.

要는 集團農場에 從事하면서도 어느정도의 農地個人所有制를 擴大함으로써 農民의 耕作意慾을 增大시켜야만 生産성의 向上이 이루어지리라 보기 때문에 蘇聯의 經濟體制가 部分的으로 資本主義方式을 모방한다 해도 根本的으로 共產主義 概念自体가 變化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問題점이 있는 것이다.

라. 東·西貿易의 增大와 蘇聯의 對外貿易

1960年代 前半期까지 東·西貿易은 東歐와 西歐間에 主要原料와 製品의 補完的 交易이라는 制限된 形態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후루시초프」의 失脚以來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諸國들은 그들의 廢鎖的인 社會主義統制經濟의 非能率性を 克服하기 爲한 「리베르만」의 「利潤原理」와 「比較生産費」의 原則에 따라 經濟體制의 自由化와 西方世界와의 交易增大를 積極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COMECON」諸國은 1964年初에 「COMECON」銀行 (國際經濟協力銀行)을 創設하여 域內 交易增大와 社會主義 諸國間의

多角的 決裁制度의 確立 및 共通 通貨創出에 努力하였다.

그러나 1960年-70年尙의 10年尙의 「COMECON」 域内貿易의 年平均 增加率은 8.4%를 나타내고 있는데 比하여 蘇聯等 「COM-ECON」 諸國의 西歐諸國과의 交易은 輸出이 年平均 11%, 輸入은 年平均 12%나 增加하여 共產諸國의 自由陣營諸國과의 交易構成比가 1955年度의 26.5%에서 1970年度에는 38.2%로 增加하였다. (表4-12)

(表4-12) 東·西貿易의 年度別 增加現況 (單位:10億\$)

区 分	1950	1955	1960	1965	1969	1970
共產諸國貿易總額	10.7	19.2	33.8	48.5	65.5	71.7
構 成 比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① COMECON 域内貿易	8.2	15.5	26.6	39.9	54.4	61.2
對自由國貿易額	4.0	5.1	9.9	13.9	24.0	27.0
構 成 比 (%)	37.4	26.5	29.2	28.7	36.6	38.2

資料: 蘇聯·東歐經濟速報, 1971, 12.25

註: (1) COMECON 域内交易은 中繼·再輸出包含

한편 中·蘇理念紛爭의 激化와 EEC의 抬頭 그리고 極東에서 日本의 經濟力 擴大等에 刺戟받은 蘇聯은 1969年 1月 「COMECON」 創設 20年 行事에서 「COMECON」의 經濟統合論을 提唱하기에 이르렀으며 「COMECON」 域内の 分業體制 確立과 原料増産 및 共同事業에 對한 長期借款供与를 爲해 「國際投資銀行」을 設立하여

蘇聯의 領導下에 共產國際國의 團結을 強化시키고 있다.

(1) 蘇聯의 貿易政策과 國際收支 現況

蘇聯에 있어서는 國際貿易이 國家管理에 依한 「計劃貿易」으로써 實施되고 있다. 따라서 對外貿易은 어디까지나 國內經濟의 從屬된 形態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一定한 輸入計劃에 따라 輸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輸出은 이같은 輸入計劃을 達成하기 爲해 國內需要와의 均衡을 고려하여 輸出計劃을 세움으로써 貿易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現象은 2次大戰 特히 「스타린」의 「一國家社會主義」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2次世界大戰以後 東·西貿易의 擴大와 더불어 漸次 퇴색해 가고 있다.

특히 8次 5個年計劃(1966 - 70)의 實施에 있어서 蘇聯貿易의 黒字가 增大해 가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一般的으로 蘇聯當局의 貿易政策의 轉換을 反映하는 것이며 輸出擴大의 積極的 努力에 基因하는 것이다. (表 4-13)

1971年度 蘇聯貿易의 總額은 約 235億「루블」로써 輸出 124億「루블」과 輸入 111億「루블」로 構成된다.

8次 5個年計劃의 貿易總額은 約 913億「루블」로써 5個年 前에 比해서 約 272億「루블」(42.5%)이 增加하였다.

(表4-13)

蘇聯的貿易收支現況

(單位：100萬盧布)

年 度	輸 出	輸 入	貿易收支差
1938	229.8	245.3	- 15.5
1940	239.7	245.5	- 5.8
1945	301.8	259.7	42.1
1950	1,615.2	1,310.3	304.9
1955	3,084.0	2,754.5	329.5
1960	5,007.3	5,065.6	58.3
1965	7,357.2	7,252.5	104.7
1966	7,957.2	7,121.6	835.4
1967	8,684.0	7,682.6	1,001.4
1968	9,570.9	8,469.0	1,101.9
1969	10,489.7	9,294.1	1,195.6
1970	11,520.1	10,561.1	959.0
1971	12,420.0	11,160.0	1,260.0

資料：蘇聯貿易統計年鑑

(2) 蘇聯의 輸出入 貿易構造

2次大戰以後 蘇聯의 貿易은 輸出에 있어서는 機械設備, 燃料, 電力, 鉍物, 金屬 및 金屬製品, 케블電線等이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纖維原料 및 同製品 食料品 및 原料, 消費用工業製品 等の 輸出 占有率은 低下됨으로써 質的인 高度化를 達成해 가고 있다. 輸入品 目으로서는 主로 機械設備가 큰 比率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年度에 있어 消費用工業製品 化學品, 肥料, 고무의 輸入도 增大해 가고 있는 反面에 纖維原料라든가 食料品等の 輸入比率는 減少해 가고 있다. 以上과 같은 商品構成의 變化는 蘇聯經濟의 戰後發展動向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인데 機械設備의 輸出面의 比重增大는 「COMECON」 圈內에서의 生産協力의 擴大와 開發途上國의 援助增大에 基因하는 것이며 燃料, 電力의 輸出增加는 國內 石油資源等の 開發에 基因하는 것이다. 纖維原料 및 同半製品, 食料品 및 原料 및 消費用 工業製品의 輸出比率의 低下는 國內需要의 增加에 依한 輸出餘力의 減少도 反映하는 것이다. (表 4 - 15)

(表 4 - 14.)

蘇聯的輸出入構造

(單位：%)

	輸 出		輸 入	
	1950	1970	1950	1970
機 械 設 備	11.8	21.5	21.5	35.1
燃 料 . 電 力	3.9	15.6	11.8	2.1
鉍 物 . 金 屬 製 品	11.3	19.8	15.0	10.5
化 學 品 , 肥 料 , 工 具	4.3	4.2	6.9	5.6
木 材 . 璽 紙	3.1	6.5	3.8	2.2
織 維 原 料	11.2	3.4	7.7	4.8
食 料 品 同 半 製 品	20.6	8.4	17.7	15.0
消 費 用 工 業 製 品	4.9	2.7	7.4	18.3
計	71.1	82.1	91.6	93.5
其 他	28.9	17.9	8.4	6.5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蘇聯貿易統計年鑑

第 5 章 蘇聯經濟의 問題點 및 展望

가. 蘇聯經濟의 問題點

蘇聯의 經濟體制가 數年內에 根本的으로 變質되어 從來의 中央集權的 計劃體制에서 地方分權的이며 利潤動機方式에 依存하는 體制로 變質될 것이 豫想된다.

蘇聯의 經濟體制는 個人의 創意와 いろ 因한 經濟의 革新보다도 國家의 計劃과 指導에 의거하는 社會主義體制이며 지난 半世紀 동안 이에 기초해서 比較的 높은 成長率과 工業化로 實証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蘇聯經濟의 成長과 工業의 構造的 심화는 國家의 指導만으로는 發展을 더 以上 持續시킬 수 없는 問題에 直面하여 60年代부터 停滯局面에 접어 들었다.

社會主義計劃經濟와 官僚支配下의 經營은 이른 바 「노르마」라고 하는 生産割當額을 達成하는 것으로 滿足하는 惰性を 派生시켰으며 때 문에 生産이 需要와 消費大衆의 厚生과는 無関하게 되는 矛盾을 惹起시켜 왔다. 卽, 「노르마」를 重量으로 割當하면 製品의 使用價值를 고려함이 없이 製品의 數量으로 채우려 함으로써 質을 度外視하여 왔다.

따라서 生産된 製品은 滯貨로 쌓일뿐 消費生活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는 矛盾에 直面하게 되었고 이로 因한 浪費와 非能率은 비단 消費財工業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었다.

生産財工業에 있어서도 새로운 技術開發이 不振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聯関工業에 對한 有機的 調和같은 것은 期待하기 어렵게 되어 新規投資의 進捗을 低下시키는 矛盾을 派生시켰다.

이러한 一聯의 矛盾은 中央集權的 計劃方式이 多數의 創意보다 少數 官僚의 計劃을 信賴한다는 制度自體의 欠陥에서 派生되는 것임으로 制度自體를 再檢討하지 않고서는 解決될 수 없는 問題이다.

때문에 1950年代 後半 「후루시초프」의 登場과 더불어 「리베르만」의 利潤動機導入論이 擡起되었던 것이며 이는 1965年 「코쉬긴」首相에 依하여 一部 消費財工業에 適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源泉的으로 社會主義理論의 正統性에 어긋나는 利潤制度의 導入은 그 後 심각한 理論紛爭을 야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共產主義基本理念上의 制約으로 因하여 그 導入이 阻害되었던 利潤動機方式을 蘇聯이 이제 수긍하지 않으면 안될 根本的인 原因은 ① 蘇聯經濟의 成長率이 크게 鈍化되고 있으며 ② 新規投資完成率이 計劃에 크게 未達될 뿐 아니라 技術의 開發速度가 不振하여 그 突破口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③ 연이은 凶作으로 食糧危機에 直面하고 있다는 事實等인데 이같은 全般的인 停滯를 脱皮하기 爲하여 이제 大衆的인 創意的 發揮에 期待할 수 밖에 없다는 判斷이 理念보다 重視된 所以라 하겠다.

그러나 生産性を 만회하기 爲한 65年度부터의 企業의 利潤追求方式은 期待했던 대로의 生産性を 提高하는데 短期的 効果를 多少

發揮하기도 하였으나 極度로 相反되는 政策의 混用은 漸次 그 기
行性を 드러내어 지난 1969年度の 蘇聯經濟는 65年以後 最惡의
1年을 記録하게 되었고 그 結果 計劃經濟에 對한 根本的인 회의
를 蘇聯支配層에 안겨 주었다.

왜냐하면 經濟에 「利潤制導入」으로 發展을 圖謀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그 中核인 「價格」과 「貨金」을 계속 嚴格한 統制下에 들으
로써 「市場要因」을 비제한에 起因하는 것이다. 蘇聯은 지난 66
年度에 約 7百個의 「示範企業」을 選定하여 利潤制方式을 試驗하였
는데 이들 示範企業體의 利潤이 年間 25%인데 比하여 여타의 企
業은 平均 10% 内外였고 農業分野에 있어서도 家族 單位의 營農이
集團農場方式 보다 約 6倍의 生産性を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改革過程에서 蘇聯이 과감한 價格體系의 變化를
試圖했다라면 經濟政策은 成功裡에 進行되었을 지도 모른다.

即, 國家의 嚴格한 計劃下에서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져 온 配給組
織은 彈性性있는 企業運營에 對應한 組織으로서 바꾸어 저야 하는데
이러한 事實은 곧 共產主義經濟自體의 崩壞를 뜻하는 만큼 移行되기
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스로의 試行錯誤를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利潤制度를 基礎로 한 蘇聯의 「코쉬긴」經濟改革
은 지난 69年度末까지 全體工業의 生産單位 約 4分の3인 3萬6
千個의 工場을 새로운 形態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들 業體는 總工業
生産에서 83.6% 利潤總額의 0.1% 以上을 찾아하여 多少의 效果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69年度 蘇聯經濟의 各種 成長率의 指標은

70年度로 끝날 5個年計劃期間中 目標達成이라는 最惡의 狀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特別히 1人當 實質所得의 增加率은 5.5%에 未達하는 5%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事實이 바로 「브레즈네프」가 指摘한 計劃上의 過誤 卽, 「經濟計劃」과 實際의 「經濟循環」이 調和를 이루지 못한 데에 原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經濟가 沈滯에서 脫皮하려면 다음 몇가지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이미 失敗한 經濟改革을 再改革하는데 따른 不可避한 經濟的 마찰이며

둘째로는 이제껏 蘇聯經濟發展에 制動要因을 形成한 國防費의 增加를 어떻게 삭감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더우기 「브레즈네프」가 軍裝備現代化를 當面課題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軍事費는 今後에도 계속 커다란 經濟的 負擔要因이 될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나. 利潤制度和 새로운 價格体系의 定立

(1) 價格策定の 理論的 論爭

前述한 바와 같이 1965年度에 단행한 「코쉬긴」經濟改革의 成敗如否는 또한 새로운 新制度의 本質을 左右하는 決定要因은 「價格体系」의 形成에 集約되고 있다.

따라서, 蘇聯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經濟制度下에서의 價格形成의

合理的 規範을 어떻게 設定하느냐 하는 問題를 論争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理論經濟學者나 政策立案者의 大部分은 價格은 實質生産「코스트」를 反映하는 것이어야 하며 需要變動에 左右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傳統的 「맑스」主義立場을 固執하여 왔다.

이러한 一派가 關心을 集中한 것은 價格策定機構, 企業의 利潤性을 애워싼 諸問題, 價格의 技術革新意慾에 미치는 刺戟, 販賣稅 및 價格의 包含되는 「마진」을 通過 이루어 지는 國民所得再分配의 問題等이다.

反面에 少數派에 屬하는 「네브치노프」, 「칸트로비치」等 數理經濟學者들은 西方側의 變動價格論을 漸次 받아 드리려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價格이란 相對的 不足狀態를 나타내는 指標의 役割을 하여 本質的으로 財貨의 需給關係를 反映하는 指標로 生賞하고 있다.

그러나 工業의 價格體系를 어떻게 改革할 것인가에 對해 蘇聯의 經濟學者들은 ① 傳統主義派 ② 剩餘生産物加算派 ③ 理想「코스트」派로 大別된다.

먼저 傳統主義派는 工業價格構成의 傳統的 方式에 基本路線을 支持하고 있다.

價格을 經濟管理의 手段으로 利用할 경우 企業體의 效率的인 活動을 推進하고 特定한 事物의 需要供給要因을 確認하고 特定商品의 消費를 促進 또는 減退시키기 爲해 大部分의 경우 價格로부터의 遊離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傳統主義派는 또한 生産財價格 全體의 水準을 大幅的으로 引上하여

剩餘生産物을 擴大해야 한다고 生賞하지는 않으나 代身 그들은 欠損이나 過剩利潤을 排除하고 代替品間의 適正한 價格關係를 確立하고 新型機械의 導入을 促進하는 等等을 爲해 生産財價格構造의 部分的 調整을 主張하고 있다.

다음 두번째로 剩餘生産物 加算派는 生産「코스트」(C+V)에 一定比率의 剩餘生産物(m) 加算을 첨가 價格을 價値(即 C+V+m의 合計)에 同等하게 함으로써 價格基準의 價格決定을 提唱하고 있다. 이들은 消費財의 都売價格의 全般的 水準을 變更함이 없이 生産財의 都売價格水準을 引上토록 提唱한다.

세번째로 理想「코스트」派는 價格은 相對的 欠乏을 反映해야 하며 資本料, 地代를 包含한 效率價格을 間接的으로 提案하고 있다.

이같은 價格은 理論的으로는 投入과 産出 其他 數學的 計劃技術에 依할 「最適計劃」의 編成에서 얻어지는 「Shadow Price」와 같게 된다. 그럼으로 最適計劃은 政治指導者가 設定하는 一聯의 最終 産出目標을 可能한 限 效率的으로 達成하게 될 것이다.

理想「코스트」派는 計劃과 「Shadow Price」等 複雜한 經濟關係에 對해 詳細한 情報의 欠如 또한 그것이 있다 해도 情報을 處理하는데 必要한 資料處理 計算設備의 欠如 등으로 現在로는 編成할 수 없음을 認定한다. 그러나 不完全하기는 하나 最適計劃의 理想的 價格特徵의 一部를 導入하여 現行價格體系의 改善을 考慮하고 있다.

(2) 「코쉬진」의 價格改革 內容

以上과 같은 價格体系의 論争 가운데 「코쉬진」의 價格改革 內容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65年 「코쉬진」首相 演說에서 밝혀진 價格改革의 主要內容을 보면,

① 總產出量보다 売上과 利潤性을 企業成績의 主要指針으로 設定하고 ② 各 生産 單位는 產出과 投入의 構成을 決定함에 있어 前보다 多少 큰 自由를 얻는다. ③ 資本의 節約을 爲하여 企業체는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에 對해 利子를 支払할 것이며 그 利潤性은 「코스트」 보다도 資本과의 關聯에 있어 算定되고 新規投資는 大部分이 財政給付가 아니고 銀行融資에 依해 調達되어야 한다. ④ 生産單는 그 利潤에서 投資 및 勞働者와 經營者 雙方의 「보너스」支払을 爲해 보다 큰 部分을 留保한다. ⑤ 價格은 品質, 耐久性, 信賴性 및 消費者가 얻은 經濟效果를 考慮해야 한다. ⑥ 價格은 社會的 必要勞働「코스트」를 最大限 反映하고 生産과 配給「코스트」를 커버하고 正常操業하는 各 企業체의 利潤爭取를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等으로 되어 있다.

(3) 農産物 및 小売價格改革案

農産物 調達價格에 對한 主要批判은 相異한 製品의 價格과 「코스트」와의 關係 價格의 地域隔差에 對한 欠陷과 價格이 合理的인 專門化를 促進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點等이다.

첫째 批判은 調達價格의 水準과 體系는 다같이 生産「코스트」를 적절히 考慮함이 決定되어 왔다는 點이다. 그 結果 共營農場의 產出을 增大시키기 爲한 刺戟이 없었으며 共營農場의 農夫들은 各者의 個人農地에 勞力を 集中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는 點이다.

둘째의 批判은 個個作物의 價格은 有利한 自然條件에서 發生하는 地代의 差異를 補하기 爲해 地域的 格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價格의 差異는 相異한 地域에 있어서의 「코스트」差異만큼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改革案은 ① 價格을 平均生産費 (Average Cost) 보다 限界生産費 (Marginal Cost) 에 依해 決定하고 ② 地域의 境界를 設定하고 相異한 地代를 받기 爲하여 價格差 以來의 手段을 使用하며 ③ 收穫의 變動에 따라 價格을 變換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小売價格策定에 있어서는 이제껏 價格은 需要와 市場을 充分히 檢討하지 않고 決定되어 왔으며 이에 對한 改革案으로서 ① 需要를 면밀히 檢討하고 價格의 彈力性을 增大하며 ② 價格의 決定을 더욱 非集中化 한다고 되어 있다.

다. 價格體制의 展望

이제껏 蘇聯의 制度改革과 그 成敗의 核을 이루고 있는 價格

体系에 關하여 檢討하였는데 蘇聯經濟가 生産과 資源配分을 指導함에 있어 中央의 指令보다 市場性과 財貨의 循環에 보다 큰 役割을 賦与하는 方向으로 徐徐히 移行해 감에 따라 蘇聯의 經濟學者 및 政策樹立家, 政治指導者들은 漸次 價格機能에 큰 注意를 集中하게 되었다.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는 蘇聯經濟에 있어 價格制度의 많은 欠陥을 暴露했으며 多樣한 改革案이 續出했는데 小規模의 技術的 修正案으로부터 基本的 性格의 抜本的 變革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蘇聯共產黨과 政府의 最高幹部들이 現在 이같은 價格問題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음은 事實이지만 中央計劃當局은 財貨의 不足을 反映하여 可用資源을 效果的으로 配分할 수 있는 價格을 確保하기 爲해 價格制度의 大幅的 改革에는 매우 주저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가지 理由는 經濟計劃立案 및 行政官僚들이 이같은 改革에 抵抗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의 政治指導者와 計劃立案者들은 全体經濟에 對한 管理權을 消費者의 至上權에 넘겨주는 것을 꺼려하며 따라서 彈力的 價格에 産出量을 決定시키고 資源을 配分하고 所得을 分配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럼으로 「코쉬긴」의 新經濟模型에서는 生産單位業績指表, 決定權의

分散等은 分散했음에도 不拘하고 價格決定은 如前히 集中化되어 改革이 없으며 今後에도 主로 前述한 「맑스」主義理論에 基礎한 傳統的 類型에 따라 價格體系가 形成될 것이라 豫想된다.

그 結果 蘇聯의 計劃立案者들은 蘇聯經濟에 있어 800万 乃至 9百万種類的 價格을 規制한다는 不可能한 作業에 계속 直面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蘇聯의 苦悶과 「딜레마」는 資本主義體제의 全面的 導入이 資源配分의 効率化 나아가서는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는 決定的 要因임을 시인하면서도 또한 그들이 신봉하는 「맑스」理論과 共產主義經濟體制가 이미 時代의 變化에 그 適應性을 상실해 간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있으나 現存하는 그들의 社會體制가 敝存하고 있는 限 急進的 改革은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